

호남, HDPE 3라인 재가동 “연기”

5월3일 정기보수 끝난 시점 ... 복구일정에 따라 3월에도 가능할 듯

2003년 10월3일 폭발사고가 있었던 호남석유화학의 No.3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16만톤 플랜트가 5월 재가동된다.

호남석유화학 관계자에 따르면 “호남석유화학의 정기보수가 끝나는 5월2일 HDPE 3라인이 재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석유화학의 HDPE 제3라인의 재가동이 예상보다 앞당겨진 원인은 폭발사고로 인해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던 반응기 등의 핵심공정의 교체작업이 없기 때문이다.

호남석유화학에 따르면 “HDPE 제3라인 복구가 늦어도 3월까지 마무리 되지만 복구 완료시점이 4월1-5월2일로 호남석유화학의 정기보수 일정과 겹쳐 재가동 일정이 5월로 미루어졌다”고 전했다.

호남석유화학은 10월3일 폭발사고로 제1 플랜트는 2003년 10월21일까지, 제2 플랜트는 11월 말까지 가동을 중지했었다.

호남석유화학은 HDPE 제3라인 폭발 당시 피해액을 90억원으로 추정했었다. 호남은 정확한 피해액에 대해 5월 경에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보험회사와의 피해액 산정이 복구완료 시점부터 약 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호남석유화학은 재가동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인데 2003년 10월 호남석유화학의 제3라인 폭발사고 이후 HDPE 국제가격이 폭등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호남석유화학은 “복구일정이 3월로 계획됐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가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호남석유화학의 폭발사고 이후 HDPE 가격은 Injection 그레이드 기준 FE Asia 2003년 10월 톤당 631달러에서 2004년 1월 톤당 780달러로 149달러가 폭등했다. <김동민 조사연구원>

<Chemical Journal 2004/01/30>